

오늘의 기사관

19일
행사
▲ETRI 광통신업체 국제승인 시험관 현판식=오후 4시 ETRI.
▲관광특구지정 외국인 관광객 통계 조사용역 최종보고회=오전 11시 목포시청 상황실.
▲선진농협 주부대학 개강식=오전 10시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20일
▲제 56주년 광주·전남 순국호국학생 위령제=오전 11시 광주 어린이공원.
▲제 91차 광주경제포럼=오전 7시 광주 신양파크호텔 그랜드볼룸.
▲서남권 일자리 창출 연대회의 및 세미나=오전 10시30분 목포 상그리아비치호텔.
▲광주시 구청장협의회=오후 7시 신양파크호텔.
▲광주테크노파크 이사회=오후 5시 광주시청

연극 취선록 오후 7시30분 공동예술극장

상황실.
▲담양군 교서 원주보건진료소 신축 준공식=오전 11시 담양군 교서원주보건진료소.
▲친환경 도우미 및 농업인 교육=오전 9시20분 순천시 별당농협.
▲제 23회 예향제=19~20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동수정 피아노 독주회=19일(월)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연극 취선록=19~20일 오후 7시30분 공동예술극장.
▲순천 시립합창단 '가곡과 아리아의 밤'공연=20일(화) 오후 7시30분 순천문화예술회관.
▲박주연 가요독주회=20일(화)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패션 전공 졸업전=23일까지 조선대 미술관.
▲월드컵 대구광주 New V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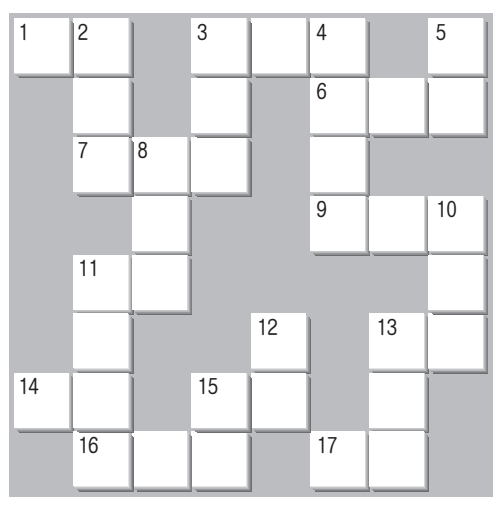
광주일보가 실시한 15·16회 뉴스퀴즈 추첨 결과, 정애경씨가 1등에 뽑히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정씨는 18일 광주일보 편집국에서 열린 상품 추첨식에서 진공 청소기의 주인이 됐습니다.
15·16회 뉴스 퀴즈엔 엽서와 편지로 449명이 응모했으며,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답자 2명을 뽑아 순서에 따라 등수를 정했습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홍보 사원 박선영씨가 추첨을 했으며, 광주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양해경 경사와 이순만 경장이 공정한 추첨을 위해 입회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위 ▲정애경·광주시 서구 화정동
2위 ▲서영신·광주시 서구 차평동

뉴스퀴즈
17. 2006 독일월드컵 한국축구 대표팀이 지난 13일 토고를 상대로 월드컵 사상 원정 첫 승을 거뒀습니다. 대표팀이 2대 1로 승리를 거둔 뒤 인터넷에서는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한국 대표팀에 대한 칭찬과 동영상도 실재없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천수 선수는 이날 동점골을 넣었고, '반지 세레머니'로 유명한 이 선수는 역전골을 넣었습니다.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① 안정환 ② 이을용 ③ 박지성 ④ 설기현
참가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당첨자에게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동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문매채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지난주 정답>
15회 - ① 원환, 16회 - ① 필리프 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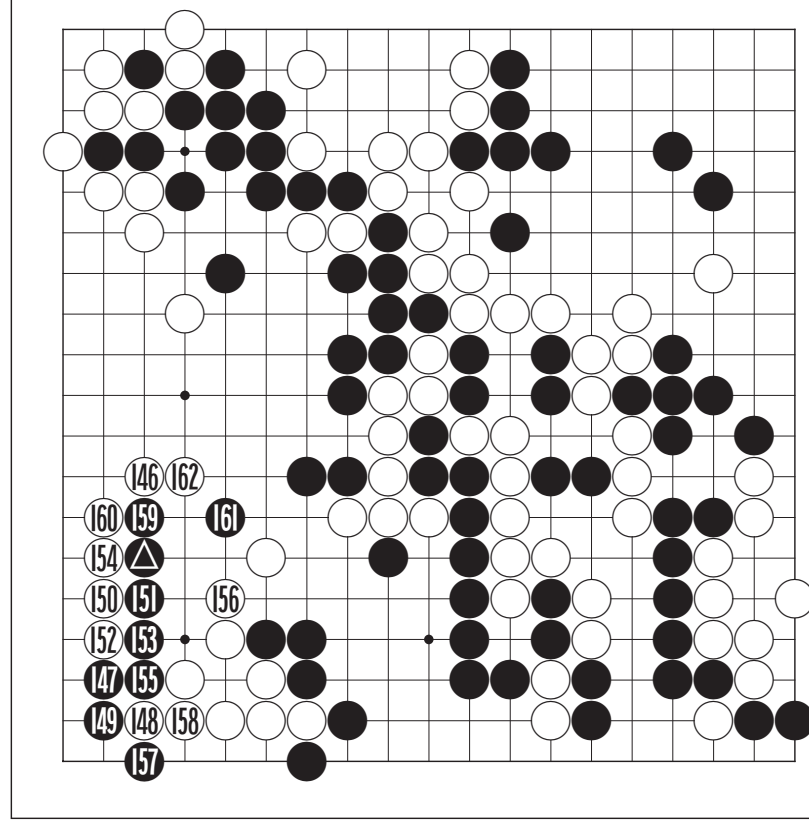
함께 풀어봅시다 <206>

→ 가로풀이
1. 현대나 상처에서 피,고름,진물 등이 나와 말라붙어 생긴 껍질. 3.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 머리카락은 모두 뱀이고 멧돼지의 엄니와 황금의 날개를 가졌으며,그 얼굴을 본 사람은 돌이 되었다고 한다. 6.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얼굴을 아는 관계인 사건의 범인. 7.산에서 뾰족하게 높이 솟은 부분. 9.거리의 조망이나 교통의 안전 등을 위해 길가를 따라 설치해 놓은 등. 11.우연히 서로 만나거나 맞닥뜨림. 그는 적들과의 ~를 피해 적진을 멀리 돌아갔다. 13.정성으로 내는 돈. 불우 이웃 돕기 ~. 14.책의 맨 앞뒤의 결합. 15.팁스타 등을 이용해 얼굴을 곱게 꾸미는 일. 16.아내의 친정을 남

편의 입장에서 이르는 말. 17.푸대접. 또는 인정 없이 모질게 대함.→후대, 손님이 ~하면 안된다.
↓ 세로풀이
2.군대 지휘관이 쓰는 막대기. 3.올려 퍼져 거던 소리가 산이나 절벽 같은 데에 부딪쳐 되돌아오는 소리.→산울림. 4.사방이 모두 적으로 둘러싸인 형국이나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고립된 상태를 이르는 말. 5.어떤 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한 사람. 8.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몸을 오른쪽으로 90도 틀어 돌아서라는 구령. 또는 그 구령에 따라 행하는 동작. 10.대학교에서 수강을 위해 내는 돈. 올해는 대학 ~이 너무 올라 학부모들이 고민에 빠졌다. 11.지계미와 쌀겨를 끼니를 이을 때의 아내



독점 유행어
막대기 리원병
피광우병
수소재개방행
회스꼬치시제
케다린시약
셋
<함께 풀어봅시다 205회 정답>
림을 모아 엮은 책.→화첩.
▲지난주 당첨자
김승규·광주시 북구 중흥동
장선미·광주시 서구 화정동
▲응모방법
광주일보 지면을 오려 정답을 적어 보내시면 매회 1명씩 추첨, 상품권(2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여문매채부



제15회 光日盃
방심과 '대약수' 2회전 제 8보(146~162)
白 김형태 <광주시교육청>
黑 박명수 <서광주농협>
김형태 5단이 완전히 끝낼 기회를 여러 차례 놓쳤다. 그러나 아직도 형세는 우세하다. 전보 마지막 수는 박명수 5단이 흑 ▲로 걸치는 장면이다. 이곳은 사실 백이 어떻게 응수하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김 5단의 방심이다. 김 5단이 안일하게 응수하면서 흑에게 가느다란 희망을 불어넣어 주더니
아니나 다를까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만다. 150의 치중은 흑을 압박하는 당연한 수. 다음 152로 치받은 수가 천하의 대자중으로 스스로 울가미에 빠져든 대약수였다. 이 수로 인해 156의 후수가 불가피해졌고 157의 단수를 당했다. 또 159마저 흑이 차지하고 말았다. 152 대신 참고도의 1로 후퇴하고 7까지 지켰으면 부동의 승세였다. 김 5단은 또 162의 탈려수까지 두고 만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원성진 등 국수전 8강 확정
원성진 7단, 이희성 6단, 윤준상 4단, 진시영 2단이 최근 한국기원에서 열린 제50기 국수전 16강전을 통과, 8강에 합류했다.
원성진 7단은 이세돌 9단을 269수 만에 흑 15집 반승으로, 이희성 6단은 최철한 9단을 흑불계로 꺾는 기염을 토했다. 윤준상 4단은 박정상 6단을, 진시영 2단은 김호곤 4단을 따돌렸다.
8강전은 이희성 6단-윤혁 4단, 윤준상 4단-진시영 2단, 원성진 7단-이상훈 9단, 윤현석 8단-박영훈 9단의 대결로 압축됐다.
국수전은 도전 5번기를 통해 우승자를 가리며, 우승상금은 4천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19일(음 5월 24일 己卯)
子 36년생 좋은 일과 연결되는 형상이다. 48년생 주변에서 시끄러운 문제가 다가온다. 60년생 하는 일이 중단될 수도 있다. 72년생 흥은 타고 길사가 접근한다. 84년생 남 여 간에 이성에 빠질 수 있으니 정신을 차려야. 행운의 숫자: 11, 37
丑 37년생 도기에 발동 찍힐 수니 근간을 주의하라. 49년생 바람이 일 수니 중정하며 지내라. 61년생 생활에 만족을 하고 바른 생활을 해야 한다. 73년생 풍류에 푹빠져 허송세월을 보낼 수도 85년생 원거리 여행은 조심해서 행하라. 행운의 숫자: 07, 34
寅 38년생 배우자편에 불면사가 발생한다. 50년생 작은 일을 주의하라 시비가 발생한다. 62년생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희망적인 장후가 보인다. 74년생 우연으로 길사와 연결되나 오래는 못간다. 행운의 숫자: 05, 40
卯 39년생 득보다 실이 많고 상부상조할 기회가 생기나 손실이 걱정된다. 51년생 주위의 시기 질투 모양으로 손실이 우려되니 적극 참여는 조심하라. 63년생 수확을 살펴봐라. 75년생 남의 말을 꼼꼼히 살펴봐라. 행운의 숫자: 14, 26
辰 40년생 문서가 새롭고 승진 영전 경사다. 52년생 주변인과 친적으로 득재가 있을 수다. 64년생 처음부터 끝까지 신중으로 신중하라. 76년생 협조자가 안 보인다. 혼자서 외롭다. 행운의 숫자: 17, 38
巳 41년생 부부간에 언쟁이 발생한다. 오늘을 참아보라. 53년생 모든 일 즐겁다. 65년생 생기가 있는 희망이 찾아오는 형상이다. 준비하고 있으라. 77년생 욕심은 금물. 차분하게 자기를 돌아 보고 모든 것을 점검하라. 행운의 숫자: 03, 29
午 42년생 범야한 길목이다 피곤이 증정될까 두렵다. 54년생 큰 계획은 중단하고 실리 찾아 집중하라. 66년생 희망찬 설개로 모든 일이 순행한다. 78년생 색정에 휘말릴 수 있으니 자제해야 하라. 행운의 숫자: 09, 45
未 43년생 좋은 매너 좋은 관계를 만드니 베풀면서 보내라. 55년생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준비를 잘하라. 67년생 사기에 열릴 수니 신중하라. 79년생 말조자가 생기나 참여는 피하고 先告後凶으로 불평이 가중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01, 36
申 44년생 부부간에 갈등은 변동으로 나타난다. 56년생 집안의 시끄러움이 밖으로 날아간다. 68년생 자신의 불평사가 주변에까지 미치지 혼자서 조심하라. 80년생 생소할 길목에서 결정이 어렵다. 행운의 숫자: 19, 35
酉 45년생 흥이 북으로 변한다. 57년생 좋은 친구가 찾아온다. 69년생 의욕이 북으로 날아간다. 81년생 내면에 활동이 집중하라. 81년생 복이 흥이 될 수도 있으나 매사를 숙고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자신을 베풀어라. 행운의 숫자: 04, 31
戌 46년생 새로운 일을 찾으나 아직은 아니다. 58년생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방법이 따로 있다. 70년생 결 다리고 속 다른 주변인이 방해할 도모한다. 82년생 과욕은 금물이나 자기의 내실도 챙겨야 할 때. 행운의 숫자: 23, 44
亥 47년생 문서와 재물이 새롭게 생겨나니 고맙게 생각하라. 59년생 고목회준의 형상으로 기쁨을 얻는다. 71년생 괴롭힌 사람이 협조자로 변한다. 83년생 형제, 수하인으로 인해 불평사가 발생한다. 살펴 보면 좋으리라. 행운의 숫자: 02, 43

굿모닝 잉글리쉬 <670>

Do whatever you want
너하고 싶은 대로 해라
A: That was Sherry. She wants me to go to Vancouver next month.
B: Why don't you?
A: I don't know whether I should or not.
B: I think you should, but, it's up to you, of course.
Do whatever you want.
A: 그 사람이 웨리였어. 그 분은 내가 다음 달에 밴쿠버에 가길 원하거든.
B: 그렇게 하지 그러니?
A: 모르겠어,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B: 네 생각에는, 너는 가는 게 좋다. 하지만 그런 네 의견에 달렸어. 암, 너 하고싶은 대로 해라
whether I should (go to Vancouver next month) or not
Why don't you ~ = You should ~ = You better ~
<주의> Why didn't you ~? : 왜 ~ 하지 않았던 거지?

오하이오 니혼고 <670>

どうぞごゆっくり召し上がってください
편안하게 드세요
A: 今日はお招待(しょうたい)いただきまして、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B: いいえ。何もあ元非(まへ)非(ひ)嗎(や)? 家内(かない)の自慢料理(じまんりょうり)です。
A: おいしそうですね。じゃ、遠慮(えんりょ)なくいただきます。
B: はい。どうぞごゆっくり召(め)し上(あ)がってください。
A: 오늘 초대 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B: 아니요, 별거 없습디만, 아내가 잘하는 요리입니다.
A: 맛있어 보입니다. 그럼, 사양않고 드겠습니다.
B: 네, 편안하게 드세요.
招待(しょうたい) = 초대
どうも = 매우
自慢料理(じまんりょうり) = 잘하는 요리
おいしそうですね = 맛있어 보입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 감사합니다

니하오 쑹구위 <388>

誰跟誰比賽?
어느 팀과 어느 팀이 경기하나요?
A: 今天有足球比賽, 你看嗎?
今天有足球比賽, 你看嗎?
誰跟誰比賽?
誰跟誰比賽?
誰跟誰比賽?
A: 韓國隊對法國隊。
韓國隊對法國隊。
B: 那當然, 韓國隊, 比賽一定很精彩。
那當然, 韓國隊, 比賽一定很精彩。
A: 2:0는 축구경기라 있는데, 볼 거예요?
B: 2:0는 팀쪽 어느 팀이 경기하나요?
A: 한국팀과 프랑스팀이요.
B: 그럼 유럽이 보이죠, 경기가 정말 흥미롭겠네요.
隊 [duì] 팀
法國 [fǎguó] 프랑스
精彩 [jīngcǎi] 훌륭하다, 뛰어나다

한자 이야기 <288>

監督(감독)
볼감, 살필독
감독(監督)은 위(臥: 엎드려다) + 점시(監) 위의 물(水)로 이루어져, 큰 점시에 물을 붓고 그 위에 엎드려 얼굴을 비춰보는 것이다. 독(督)은 목(目) + 속(叔: 모아정리하다)으로, 살피면서 조이는 것이다.
감독(監督)은 위에 있으면서 단속하거나 관리하는 일, 또는 그런 사람을 말한다.
시험(試驗)을 치를 때 감독의 눈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동서고금(東西古今) 나이의 고하(高下)를 막론하고 공통될 것이다. 하지만 같은 시험이라도 배우(俳優)나 스포츠 선수가 치르는 경우는 다르다. 이 경우는 채점관이기도 한 감독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자신의 재능을 심본 발휘한다.
영화(映畵)나 무대(舞臺) 행사(行事)를 진두지휘(陣頭指揮)하는 감독이나, 스포츠 팀을 조직(組織)하고 훈련(訓練)시키는 감독은 그 조직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인데 틀림없다. 특히 스포츠의 경우 감독의 인정(認定) 없이는 비록 선수(選手)일지라도 시험(試合)에 출전(出戰)도 할 수 없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감독이 있다고 하여도 팀의 인화(人和) 없이는 경기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것이 또한 사실(事實)이다.